



아니면 '기성자(寄成字)' 따위로 부르고 있다. 또 '이체'란 말이 제자의 한 방법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제자 방법에 따라 만든 글자의 꼴에 대한 결과적인 해석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 개념조차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 세 글자를 이체자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또 그것에 대해 아무런 의의도 없는 것 같다. 적어도 초성 17자는 반드시 상형이 아니면, 가획의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이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 그 원인을 밝혀 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또 이체자라는 말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그대로 써도 좋은지에 대해서도 필자의 견해를 밝혀 보려고 한다.

이른바 이체자라고 하는 'ㄷ, ㄹ, ㅅ' 등 세 글자의 제자 방법에 대한 설명은 《훈민정음》 제자해의 앞 부분에 나타나 있는데, 곧 “ㄱ比ㄱ 聲出稍厲故加畫 ㄴ而ㄷ ㄷ而ㅌ … ㅇ而ㅍ ㅍ而ㅎ 其因聲加畫之義皆同 而唯ㅇ爲異 半舌音ㄴ 半齒音ㅅ 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 無加畫之義焉”이라 한 부분이 그것이다. 이체자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생긴 것이며, 이체자에 대한 논의의 발단도 이 부분에서 비롯한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거나, 또는 그 해석을 분명히 하지 않으므로 해서, 초성 17자의 제자 방법 및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거나, 분명하지 않게 된다. 이 부분을 우리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곧 “ㄱ은 ㄱ에 비하여, 소리를 내는 것이 조금 세기 때문에, 획을 더한다. ㄴ에서 ㄷ, ㄷ에서 ㅌ, … ㅇ에서 ㅍ, ㅍ에서 ㅎ 등 그 소리 때문에 획을 더한 뜻은 같다. 그러나 ㅇ만은 다르다. 반설음 ㄴ과 반치음 ㅅ도 또한 혀와 이의 꼴을 본떴지만, 그 모양을 다르게 하였는데, 획을 더한 뜻은 없다.”

위의 제자해의 인용 부분 가운데, 특히 “ㅇ만은 다르다”고 한 부분과 “반설음 ㄴ과 반치음 ㅅ도 또한 혀와 이의 꼴을 본떴지만, 그 모양을 다르게 하였는데, 획을 더한 뜻은 없다”고 한 부분이 이 세 글자의 제자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지 못하거나, 이해에 차이를 보인다. 강신항(1974:21-22)에서는 'ㄷ, ㄹ, ㅅ'의 세 글자를 모두 똑같이 '이체자'라고 한다. 그리고 “唯ㅇ爲異”에 대해서, “ㅇ만은 기본자 ㄱ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異其體”에 대해서도, “ㄴ도

각각 기본자인 ㄴ과 ㅅ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가 아니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이 세 글자들은 모두 획을 더하여 만든 가획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이체자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 ‘이체’의 뜻이 무엇인지, 또 초성의 제자 방법 가운데 이체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상형도 가획도 아닌 다만 그것과 다르다는 뜻으로만 쓰는 것인지 등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다. 그리고 박병채(1976/82:29-30)에서는 ‘ㅇ, ㄹ, ㅅ’의 세 글자를 ‘이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부르는 까닭은 이 글자들을 만든 방법이 ‘ㄱㅏㅓㅕㅗㅛㅜㅝㅞ ㅎ’ 등의 가획자들의 가획의 방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홍기문(1946:56-57)에서는 위와는 좀 다른 해석을 한다. 곧 초성의 제자 방법에는 ‘상형’, ‘이체취상(異體取象)’, ‘이음취상(異音取象)’, ‘가획’, ‘병서’, ‘연서’ 등이 있는데, 이 방법들을 써서 만든 글자에는 ‘기본자’, ‘기성자(寄成字)’, ‘합체자’ 등의 세 가지가 있다. 기본자에는 “각 음의 상형”을 취하여 만든 ‘ㄱㄴㅇㅅㅇ’ 등이 있다. 기성자는 다시 그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체”에서 꼴을 취한 ‘ㄹ, ㅅ’, “이음”에서 꼴을 취한 ‘ㅇ’, 그리고 가획으로 만든 ‘ㄱㅏㅓㅕㅗㅛㅜㅝㅞ ㅎ’ 등이 있다. 합체자에는 병서에 따른 ‘ㄱㅏㅓㅕㅗㅛㅜㅝㅞ’과 연서에 따른 ‘ㄴㅏㅓㅕㅗㅛㅜㅝㅞ’ 등이 있다. 그러나 합체자는 훈민정음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의 제자 방법에 대한 설명 가운데 ‘이체취상’과 ‘이음취상’은 위에서 살펴본 ‘이체’와는 그 의미가 매우 다르다. 이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무슨 까닭으로 이와 같은 표현을 썼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체취상’의 ‘이체’란 ‘ㄹ’과 ‘ㅅ’이 각각 ‘ㄴ’과 ‘ㅅ’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글자의 꼴을 다르게 한 것이고, ‘이음취상’의 ‘이음’이란 ‘ㅇ’이 ‘ㅇ’과 그 소리가 비슷하여, ‘ㅇ’에서 글자의 꼴을 취했지만, 결국 그 소리가 다른 것을 글자에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위의 ‘이체자’ 또는 ‘이체’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이것 또한 ‘ㅇ, ㄹ, ㅅ’이 가획의 방법에 따라 만든 글자가 아니라고 이해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제까지 ‘ㅇ, ㄹ, ㅅ’ 등과 관련하여, 이 세 글자의 제자 방법에 관한 몇 가지 논의를 살펴보았지만, 이 글자들의 제자 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이것들이 가획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였을 뿐, 이체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제자 방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 이체도 제자의 한 방법인지 등에 대해

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훈민정음 초성 17자의 제자 방법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한 데 그 까닭이 있다. 특히 “唯<sup>〇</sup>爲異”라고 한 부분과 “半舌音<sup>ㄹ</sup> 半齒音<sup>ㄷ</sup> 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 無加畫之義焉”이라고 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타나 있는 초성 17자의 제자 방법과 제자 과정에 근거하여, 위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한다. 훈민정음 초성 17자의 제자 방법은 상형과 가획이다. 그 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 상형은 구체적인 말소리를 낼 때의 조음기관의 움직임이나 조음기관 자체를 본떠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다. 따라서 상형의 구체적인 대상은 오음(五音)이 된다. 그런데 오음은 또 각각 그 소리의 세기[厲]에 따라 다시 구별되므로, 그 가운데 가장 세지 않은 소리가 상형의 일차적인 대상이 된다. 상형의 방법으로 만든 글자는 ‘ㄱ ㄴ ㄷ ㄹ ㅁ’ 등이다. 가획은 이 다섯 글자들을 기초로 하여, 그 보다 소리가 센 것들을 차례로 획을 더하여 글자를 만드는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만든 글자가 ‘ㅋ ㆁ ㅌ ㅍ ㅊ ㅅ ㅆ ㅎ’ 등이다. 훈민정음 초성 17자의 제자 과정은 상형과 가획의 순서로 진행된다. 말소리의 세기가 제자의 차례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와 같은 제자 과정이나 방법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를 들어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ㅇ, ㄹ, ㅌ, ㅍ’ 세 글자의 제자 방법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제 ‘ㅇ’과 ‘ㄹ, ㅌ, ㅍ’의 경우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ㅇ’의 경우는, 훈민정음 초성 17자의 제자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 벗어난다. 곧 ‘ㅇ’은 오음(五音) 가운데 아음에 속하고, 그 가운데 소리가 가장 세지 않은 것이므로, 아음 제자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상형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ㅇ’은 아음 글자의 기본자가 아니다. 또 ‘ㅇ’은 아음인데도 불구하고 어금니를 본뜨지 않았다. 이것 또한 제자 과정에서 벗어난다. 또 ‘ㅇ’은 그 소리가 가장 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획의 방법으로 글자를 만들었으므로, 이것도 제자 과정에서 벗어난다. 결국 ‘ㅇ’은 상형 및 그 대상, 그리고 가획의 과정 등을 모두 어긴 것이 된다. 따라서 그 이유를 합당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앞에서 인용한 “ㅇ 만은 다르다”라고 한 부분이다. 그리고 ‘ㅇ’의 말소리로서의 특

징에 대한 설명도 제자해의 곳곳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곧 ‘ㅇ’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고, 소릿기운을 코로 내보내는 소리이지만, 그 소리의 청취인상이 ‘ㅇ’과 비슷하다고 한 것들이 그 예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아음 제자의 기본자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ㅇ’을 기본자로 삼아, 거기에 획을 더하여, 가획자로 만들었다. 그러나 획을 더하는 방법이나 뜻은 다른 가획자들과 같을 수가 없다. 먼저 ‘ㅇ’을 기본자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후음의 가획자들, 곧 ‘ㅁ, ㅇ, ㅎ’ 등과 가획의 방법 및 그 뜻을 같게 할 수가 없다. ‘ㅇ’에 세로 획을 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제자해에서 “ㅇ 은 비록 아음에 속하지만, ㅇ과 서로 비슷하니, 마치 나무의 싹이 물에서 나서, 부드럽고, 아직도 물기가 많은 것과 같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 “ㅇ 만은 다르다”고 한 것도, ‘ㅇ’의 가획한 뜻이 다른 가획자들의 가획의 뜻인 소리의 세기[厲]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ㅇ’의 경우는 다만 후음의 가획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구별기호’로써 가획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ㅇ’의 가획한 뜻은 다른 가획자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異音取象”이란 표현도 이것을 두고 한 말임을 이해할 수 있다.

‘ㄹ, ㅅ’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것들 또한 초성 17자의 제자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반설음과 반치음은 그 소리가 가장 세지 않으므로, 마땅히 제자 과정에서 상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형의 방법으로 만들지 않았다. ‘ㄹ, ㅅ’은, ‘ㅇ’과는 달리, 오음을 기준으로 말소리를 분류할 때, 오음 가운데 어디에 소속시킬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것들을 반설음 또는 반치음이라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것들은 설음도 치음도 아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오음 가운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것들의 조음위치가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반(半)’이란 말의 뜻도 분명하지가 않다. 그러나 이 두 소리의 조음위치가 설음 또는 치음과 거의 같거나, 비슷하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훈민정음》 종성해에서 우리나라 한자음 가운데 ‘ㄹ’ 종성을 가진 한자음은, 중국의 한자음으로는 모두가 입성인데, 이것을 ‘ㄹ’로 읽는 것은 “ㄷ이 변해서 가벼워진 까닭이다”라고 한 부분이나, 같은 종성해에서 “빛곳”이나 “엿의갓” 따위를 “빛곳”이나 “엿의갓”으로 적을 수 있다고 한 부분 등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것들이 설음 또는 치음과 조음위치가 같다고 한다면, 제자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곧 설

음에는 불청불탁의 자리에 소리가 가장 세지 않은 두 소리, 곧 'ㄴ'과 'ㄹ'이 들어가야 하고, 처음에는 비어 있는 불청불탁의 자리에 반치음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설음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처음의 경우도 지금의 제자 과정과는 다른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된다. 반설음과 반치음의 자리를 오음 가운데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마련한 것은 이 때문이다. 또 만약에 'ㄹ'과 'ㄷ'이 설음 또는 치음과 조음위치가 아주 다르다면, 이 경우에는 이것들은 제자 과정에서 상형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글자의 끝은 'ㄴ' 또는 'ㅅ'과는 아주 다른 꼴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ㄹ'과 'ㄷ'은 상형의 방법을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ㄹ'과 'ㄷ'은, 소리의 세기의 정도에 따르면, 마땅히 상형의 방법에 따라야 하지만, 조음위치, 곧 오음에서의 확실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글자를 만들에 있어, 가획의 방법을 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혀와 이의 꼴을 본뻗지만, 그 모양을 다르게 하였는데, 획을 더한 뜻은 없다”라고 한 것은 위와 같은 사실을 대변한데 지나지 않는다. 또 “異體取象”이란 말도 이러한 형편을 고려한 표현으로 이해된다.

흔히 'ㅇ, ㄹ·ㄷ' 등을 이체자 또는 줄여 단순히 이체라고 하는 까닭은 위에서 밝힌 이유 외에, 한자의 이체자와 관련시켜,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닌가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까닭으로 이 글자들을 이체자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자의 경우 이체자의 개념은 'ㅇ, ㄹ·ㄷ'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한자의 경우 이체자란 일반적으로 독음과 의미가 같고, 자형이 다른 글자를 가리킨다. 독음과 의미가 같다고 하는 것은, 말을 바꾸면, 낱말의 소리와 뜻, 곧 형식과 내용이 같다는 말이다. 형식과 내용이 같은 것은 한 낱말이다. 이와 같이 형식과 내용, 곧 시니피앙과 시니피에가 똑같은 한 낱말을 서로 다른 글자로 적은 것이 이체자이다. 예를 들면, '庵'과 '菴', '柏'과 '栢', '冰'과 '氷' 따위가 그것이다. 이체자의 뜻매김을 이와 같이 한다면, 'ㅇ, ㄹ·ㄷ'은 이체자가 될 수 없다. 앞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듯이, 'ㅇ, ㄹ·ㄷ'은 모두 같은 가획자이기는 하지만, 'ㅇ'과 'ㄹ·ㄷ'은 가획한 뜻이 서로 다르므로, 같은 범주에 넣어서 다룰 수는 없다. 또 만약에 'ㄹ'과 'ㄷ'을 이체자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ㄴ'과 'ㅅ'의 이체자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ㄴ'과 'ㄹ', 'ㅅ'과 'ㄷ'은 각각 같은 이체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ㄴ'

이 설음인데 비하여, ‘ㄹ’이 반설음이고, 또 ‘ㅅ’이 치음인데 비하여, ‘ㅅ’은 반치음이다. 이처럼 이 글자들이 오음에서 서로 구분된다는 것은 그들의 소리값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소리값이 다르다는 것은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그 내용이 서로 다르면, 형식이 다를 수 밖에 없다. 혹시 우연히 그 형식이 같아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같은 말이 아니면, 이체자의 성립 조건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ㄹ’과 ‘ㅅ’은 각각 ‘ㄴ’과 ‘ㅅ’의 이체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ㄷ’과 ‘ㅇ’의 관계도 ‘ㄹ’과 ‘ㄴ’, ‘ㅅ’과 ‘ㅅ’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곧 ‘ㄷ’과 ‘ㅇ’의 두 글자는 그 소리값이 서로 비슷하기는 하지만, 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ㄷ’과 ‘ㅇ’도 역시 이체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훈민정음의 제자 방법인 상형과 가획, 그리고 합성 따위들은 제자 과정에 있어서 서로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는 아주 다른 방법인 이체가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다. 그만큼 훈민정음의 제자 방법과 과정은 조직적이고 유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이체자라고 하는 ‘ㄷ, ㄹ·ㅅ’ 등은, 훈민정음 초성 17자에 대한 제자 방법이나 제자 과정을 고려하면, 이 글자들은 이체자가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가획자이다. 다만 가획한 뜻이 여타의 가획자와 다르거나, 없을 뿐이다. 곧 ‘ㄷ’에 대해서는 가획의 뜻이 다름을 “唯<sup>ㄷ</sup>爲異”라고 표현하고, 또 ‘ㄹ’과 ‘ㅅ’에 대해서는 기획한 뜻이 없음을 “無加畫之義焉”이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세 글자를 만든 방법을 이체라고 하거나, 그 글자들을 이체자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